

이성해 대광위원장, “광역버스 승차난, 반드시 해소할 것”

- 24일 “출근 지옥” 개선 중인 7770번 현장 방문…타 혼잡 노선도 집중관리 지시 -
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대광위) 이성해 위원장은 3월 24일(금) 오전 7시경, 수원시에서 해당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7770번 노선이 정차하는 삼익아파트 정류소를 방문하여 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.
- 수원시 7770번 노선은 연간 36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선으로서,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고, 만석으로 인한 정류소 무정차 통과 횡수도 가장 높은 대표적인 혼잡노선이었으나,
- 7770번을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광위를 비롯한 수원시,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정차 통과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.
- 특히, 7770번 노선 정류소 중 만석으로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‘한일타운’ 정류소 기준으로 출근 시간대 무정차 통과가 3월 초 20회에서 현재 2회 수준까지 대폭 감소하였다.
- 현장을 방문한 이 위원장은 “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광역버스 입석대책을 통해 버스 공급량을 크게 확대하였으나, 이용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에서는 무정차 통과나 입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” 라면서,
- “해당 노선들도 7770번 노선과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불편함 없이 광역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광위, 지자체, 운수업체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” 고 강조하였다.
- 마지막으로 수원시 관계자로부터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해소방안을 보고 받은 후, “수원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버스 노선이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정류소에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할 것” 을 당부하였다.

2023. 3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